

“광주, 친절하지만 언어·음식 등 어려움 많아요”

외국인 연구생들 광주 분투기
문화적 차이 등 일상 불편 호소
머물 수 있는 ‘열린 도시’ 필요

“친절했지만, 영어로 길을 물어봐도 소
통이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학교에 도착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광주과학기술원(GIST) 박사과정 3년
차인 수단 출신 마나르(32)씨는 한국 입
국 초기 경험을 이같이 회상했다.

한국에 입국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광
주 생활은 여전히 그에게 쉽지 않다. 그는
“지스트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럽다”면서
“학교 밖을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환
경이 되면 좋겠다. 언어 장벽, 음식 등 문
화적 차이, 종교적 제약이 겹쳐 일상 속
에서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광주지역 주요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석·박사 과정 기준) 현황에 따르면 지스
트 128명, 전남대 408명, 조선대 133명
등 총 669명의 외국인 학생이 광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부생, 연구원, 교수진, 교직원까지 포함
하면 외국인 인구는 1000명을 훌쩍 넘는
다.

광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들은 지역사회와의 친밀함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언어 장벽 △문화 차이 △
할랄 음식 부족 △대중교통 불편 △일차
리 부족 등 생활 인프라의 한계를 지적하
고 있다.



지스트 태디랩 소속 박사과정 학생들이 최근 지스트 한 연구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광주 생활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지스트 제공

지스트 태디랩 소속 이란 출신 히라
(28)씨는 “지스트에서 어딜 가려면 1시
간 이상 걸리고, 첨단지구에는 지하철이
없어 매우 불편하다”며 “한국어를 배울 시
간이 부족하고, 이란 음식을 광주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어 서울에 가야만 한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
는 주요 원인은 단순히 언어 문제에만 국

한되지 않는다.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의 미비, 지역 사회와
의 단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고 있다.

수단 출신 마나르씨는 “서울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 있어 훨씬 자유롭고 편했
지만, 광주는 너무 조용하고 보수적인 느
낌이 있다”며 “할랄 식당조차 찾기 어렵
다”고 말했다.

학교 차원의 유학생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사회 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수단 출신인 누르(33)씨는 “웹사
이트나 안내문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일상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
다”고 불편함을 털어냈다.

리비아 출신 파티마(30)씨 역시 언어
문제를 가장 심각한 장애물로 꼽으며 “카

페나 택시에서 외국인이 일하는 걸 본 적
이 없다. 국제학생들이 일할 기회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가족이 머무는 두바이와 비
교하며 “두바이는 국제화가 잘 돼 있어 교
수들도 영어로 강의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며 “광주는 그에 비해 폐쇄적이
고 단절돼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
다.

지스트는 할랄 푸드를 주식으로 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인도요리 전문 푸
드트럭의 교내 출입을 허가하는 등 자구
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
들은 “생활 전반에서 여전히 불편함이 크
다”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다양성과 국제화를 강조하는 대
학의 연구 환경에 걸맞게, 광주시와 지역
대학들이 실질적인 문화·생활 지원 정책
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단순한 환영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들
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광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
이다.

외국의 저명한 연구소로부터 광주로 영
입된 한 대학 교수는 “한국인인 나조차도
처음 광주에 왔을 때는 생활 절차가 낯설
고 어렵게 느껴졌다. 그래서 외국인 유학
생들을 위해 생활 팁을 따로 정리해 줄 정
도”라며 “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열린 도시’가 되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고법, 체육공원 추락사 지자체 배상 판결

법 “적절한 안전 조치, 미비했다”

체육공원 내 안전시설에 올라갔다가 추
락해 숨진 행인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
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
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
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
이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사망자가 잃게
된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으로 각
9738만 67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3월 22일 광주 북구의
한 체육공원에서 수영장 채광·환기 설비
의 그물망 위에 올라갔다가, 연결줄이 끊

어지면서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유가족은 해당 시설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총 4억7980만 6754원의 손해배상
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며
서도,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
단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2억5490만
337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과실 비율
을 원심보다 일부 축소하면서 “해당 추락
사고의 위험성은 시설 운영 개시 전부터
이미 지적돼 왔다”며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유철 기자

전남도 “더위에 진드기 감염병 주의하세요”

긴팔 착용·개인위생 등 당부
“고열·구토 즉시진료 받아야”

전라남도는 최근 기온 상승으로 진드기
활동이 활발해지고 개체수도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
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
화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주로 4월부터 11
월 사이 발생하며, 농작업과 등산, 캠핑,
벌초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감
염 위험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질병으로
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과 쯤쯤가무시증이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남도 내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SFTS는
2015년 이후 연평균 12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해마다 꾸준
히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8명이 감
염돼 3명이 숨졌고, 쯤쯤가무시증은 지난
해 기준 1080명이 발병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잠진드
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근육
통 등 증상이 나타난다. 상태가 악화되면
혈소판 감소, 간 기능 장애 등 심각한 합병
증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면역
력이 약한 사람은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
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쯤쯤가무시증은 털진드기를 통해 감염
되며, 감염 시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이 나타나고, 물린 부위에는 검은
딱지(가피)가 생긴다. 항생제로 치료가 가
능하지만 늦어지면 폐렴이나 뇌염 등 합병

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는 진드기 감염
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 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 모자 등 피부 노출을 줄이는 복장
을 착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진드
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밝은색 옷을
입고, 진드기 기피제 사용도 당부했다.

전남도는 도민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위
해 등산로 입구와 마을회관 등 주요 지점
에 진드기 기피제를 비치하고, 홍보 활동
을 강화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확산 방지
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나만석 전라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충
분히 예방 가능한 감염병이므로 예방수칙
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야외 활동 후
고열이나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
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
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 남구,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운영

코딩·AI 로봇 활용 문화 가치 탐색

광주광역시 남구가 관내 초·중학교 학
생들에게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기술
을 접목해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 가
치 등에 대해 탐색하는 디지털 새싹 프로
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9일 남구는 지역사회 디지털 문화 발전
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4일
부터 올해 연말까지 문화정보도서관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과학창
의재단이 공동 진행하는 디지털 새싹 프
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20명으로 올해 상
반기와 여름방학, 하반기에 걸쳐 총 3회
진행된다.

상반기 교육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
산을 지켜라’라는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하며, 코딩과 AI 로봇을 활용
해 우리나라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살펴보
면서 전통 문화유산의 가치와 보존 방법을
탐색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2일까지 남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준 기자

광주 북구, 전국 첫 번째 ‘기본사회 순회 강연회’ 개최

오늘 오후 2시 북구청 3층 대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
민주권정부 출범을 맞이해 오는 10일 전
국에서 첫 번째로 ‘기본사회 순회 강연
회’를 개최한다.

9일 북구에 따르면 ‘모두의 삶을 지키
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열
리는 이번 강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본사회’가 국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기본사회에 대한 지역사회
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 행정과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강연회는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

회’ 회원 도시 28곳 중 10개 지역에서 순
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그 중 북구가
첫 번째 강연 개최 도시로 선정됐다.

강연은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
장(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 맡
는다.

강 이사장은 국내에 기본소득과 기본사
회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정책화해온 전
문가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거론되는 인물로 이날
강연에서는 기본사회 개념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더불어 국내외 정책 사례를 바탕
으로 한 지역 행정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북구청 3
층 대회의실에서 △개회 및 인사말 △기
본사회 강연 △기념 퍼포먼스 및 단체 사
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며 문인 북구청장
을 비롯한 공직자 및 지역 주민 등 300명
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강연은 정부의
핵심 철학인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지자체의 정책 대응 방향을 함께 고
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
로도 중앙 정부와 발맞춰 기본사회 실현
을 위해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
한 정책 및 사업들을 발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